

행원리의 전래 농기구에 관한 연구

김 동 섭*

차 례

1. 머리말
2. 제보자와 조사지
3. 주요 전래 농기구
4. 조사 후기

1. 머리말

이 글은 1999년 1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계영(男, 70 : 북군 구좌읍 행원리 809-2)의 댁에서 있었던 여러 제보자들과의 이야기와 이계영의 안내로 몇몇 가정을 방문하여 촬영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행원리는 제주시에 관광지로 유명한 성산일출봉을 가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서 가는 곳으로 지금은 풍력발전소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예전 모살왓의 척박함을 인내와 슬기로 이겨내며 이 땅을 지켜 오셨던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여러 날 소상히 전해 주신 제보자 여러분들과 묵묵히 바다의 발을 가꾸어 오신 여러 행원리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들의 한숨과 흘린 땀방울로 영근 행원리의 어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하게 될 내일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제보자와 조사지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었던 이계영의 짚지 않은 삶을 간략하게 적으므로 행원리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51년 정도였으니까 23, 4살 때 '마늘'과 '양파'를 처음으로 행원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비료를 구할 수 없어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국민학교의 동통에 찌몰을 퍼부었다가 '알통케'라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목도(目睹)로 그 동을 퍼서 밭으로 전부 옮겨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첫해는 양파는 잘 되었는데, 전부 도둑질을 해가 버렸다. 동을 주어서 그랬는지 큰 것은 정말 컸는데, 그것을 밤마다 잃어버렸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그래도 흠쳐 가지 않은 작은 것을 20개씩 묶어 조(黍) 1말을 받았다. 잃어버린 것 없이 전부 다 팔아 받았다면 20섬 이상을 받았을 텐데, 다 잃고 남은 것만으로도 5섬을 벌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재미가 있어 여러 사람에게 권해도 잘 하지 않아 처음 10년 정도는 참으로 좋았다. 15년 동안하고 나니 행원 사람들이 하나 둘 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것을 하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이 때 마늘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이 당시 시작한 것이 토마토였다. 당시 150평을 빌어 했는데 몸이 아파 집안에서 농사를 지어 50만원의 수입을 올린 적도 있었다. 조 보리 농사가 특작(特作)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6, 70년경으로 서귀포에서 60년대부터 밀감을 시작했다. 당시 밀감 나무는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별로 일본에서 수입하여 심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돈을 벌어서 받도 많이 사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서 평소 생각해 왔던 사업을 시작했다. 해조분(海藻粉)을 분쇄(粉碎)해서 미국으로 수출했다. 그것은 사료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판로는 많았지만 자금 회전이 어렵고, 400만원 용자받았는데 담보가 부족하여 재주시 가옥 담보를 해야 했는데 그 당시 80%를 그 사람이 썼으므로 자금 회전이 어려워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계영(28살)씨가 공장 경영에 뜻을 두어 정미소를 임대 받아 2달간 시험 운영을 해보아 사업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31살에 공장을 세웠는데 결국은 자금 압박으로 한계를 받게 되었다. 그 때 사업의 실패로 망했다.

이계영의 부인인 현옥순의 과거력은 다음과 같다.

현옥순(女, 68)은 14살에 결혼했다. 안 산다고 도망을 갔다가 했다. 흠아방 시아방을 모시고 살다가 12발을 이사 다녔던 슬픈 일도 있었다. 젊은 때 사업하다가 망하였다. 출가물질 19살에 갔다가 그 때 4,000원을 벌어서 지금은 몸이 부었다. 지지포, 총무, 장포(울산), 논산, 어디 안 가본 곳이 없었다. 물질은 봄에 나갔다. 여러 사람이 많이 나갔다. 배 하나에 15사람, 20명이 타기도 풍선을 타고 떠났다. 겨울이 되면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다음 해 봄에 나갔다. 3~5사람이 한 방에서 사는데, 한사람이 말 가운을 먹으나 여럿이 먹으면 한 달이 두달 정도를 더 먹었다. 천추(우뭇가사리)가 돈이라서, 이제도 천추가 돈이라서 한 18, 20, 30층을 해서 돈을 벌었다. 먹고 싶은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돈을 벌었다. 상군(上軍)인 경우 2년 나갔다 오면 500평 이상 받은 샀다. 예전에는 머리가 아파도 약을 먹지 안 먹었다. 그 당시는 머리도 아프지 않았다.

제보자들의 이름을 밝혀 그 분들의 땀과 정성으로 지켜 온 이 땅을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조사 기간 내내 장소를 할애해 준 이웅과 그의 아내 현옥순님에게도 감사드리며 빠른 쾌차를 빈다. 또한 김인홍(男, 71:행원리 829-1), 홍승대(男, 58 : 행원리 1449), 김봉주(男, 64 : 행원리 1410), 한재문(男, 60), 강원배(男, 69:행원리 1428) 한정섭(男, 45:행원리 819-2), 김복룡(男, 70) 김윤칠(男, 67:행원리 818-11-상여소리) 박쾌정(男, 52)님들에게서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들의 땀으로 이루고 가꾸어온 진솔한 기록일 뿐이다.

3. 주요 전래 농기구

(1) 따비 - 굳은 땅을 일굴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귀한 것이었다. 행원에는 재원이 아버지와 홍은표씨 댁에서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옛날 불미간에서 '느리' 두드려 만들고 손잡이인 '버둑'과 발판은 쉰 낭인 낭가시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2) 벤줄레 - 이계영의 어릴 때 기억이다. 어른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나 고 물으니까 너들은 모른다. “옛날에 돌 일굴 때 썼던 것이여”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요사이는 ‘데코’로 대신하고 있다.

(3) 팽이 - 팽이는 뒷발을 일구는 등 흙을 파거나 나무 뿌리 등을 캐 낼 때 등에 주로 사용하였고, 섭팽이는 고랑을 내거나 흙을 올리는데 사용하였다. 목팽이와 곡팽이는 돌을 일구는데 주로 사용하였다. 팽이는 ‘즈룩’과 날인 ‘팽이’로 이루어진다. 약초팽이는 도라지 같은 약초를 켤 때 사용하였는데 만덕이 할아방네, 종대 아방네에 있었다고 한다. 날이 반달 모양으로 넓게 만들어진 섭팽이(‘선호미’라고도 한다.)도 쓰였다.

홍은표씨가 소장한 팽이는 즈룩을 가시낭으로 만든 것인데 길이는 110cm, 날 길이 17cm, 폭은 7.5cm 정도이다. 룯을 끼우게 된 ‘목’의 길이는 13cm 정도이다.

(4) 잠대 - ‘쟁기’라고도 한다. 양지머리, 양지머리(양손을 잡고 작업하는 것이라서 붙여진 것 같다.), 성애(춤), 몽클(소낭), 뱃, 보섬, 설칫(춤)으로 썼다. 깊게 갈 때는 내리고 얇게 갈 때는 올리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새기(춤), 돌뽕이뽕(춤), 오리목(돌뽕이뽕에 묶을 때는 별도의 끈을 사용하였다.), 벌랫대(한줄과 연결되는 부분은 소가죽(고애가죽, 고웨가죽이라고도 한다.) 말린 것을 사용하였다. 벌랫대는 춤낭으로 썼다.), 한줄(소 오줌을 싸면 오래가지 못하므로 예방하도록 한 것-숨부기 뿌리, 검은 남총, 선홀가서 명줄 건너당, 나일론), 등태, 코(소가죽을 말려서 사용하였다. 한 줄에 등태를 연결하는 것), 오랑(쇠질매할 때만 쓴다.), 멍에(오동나무, 버드나무), 접계(삼동낭, 윤투리낭)로 잠대는 구성되어 있다.

‘멍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굴목 위에 ‘공쟁이’에 걸어 두었다. 잠대는 정지에 주로 보관해 두었다. 이렇게 되면 쉬지도 않고 오래 쓴다. 몽클에 나 있는 구멍은 성애가 움직일 수 있도록 크게 나 있었고, 성애가 설칫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구멍이 만들어져 있다. 뱃을 고정시킬 때 뱃받

침, 뱃칼을 조정하였으며, 뱃받침은 다른 '뱃끈'으로 '성에'에 묶어 고정시켰다. 뱃의 뒷면에는 '뱃궁기', '뱃턱'이 있어 고정시키는데 이용하였다. '뱃궁기'에 끼워 고정시킬 때 사용하였던 재료는 '남총'이었다. 보섭은 돌 박힌 줄 모르고 돌에 받치면 그 자리에서 부러진다. 보섭의 값은 보리 1말 값 정도는 되었다. 주물로 만들었던 것이므로 세화장에 가서 사서 사용하였다. 지금도 홍은표씨 댁에서는 파종할 때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1970년대 말까지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홍은표씨 댁 이문간 헛간에 걸려 있는 것은 규격은 다음과 같다. 무클 120cm(폭 9cm, 두께 5cm), 양지머리 62cm, 설칫 62cm(폭 11cm, 두께 2cm)이나 성에 위로 올라온 부분이 8cm로 새기가 박혀 있었다. 성에는 한발 한 뼘으로 하는데 길이가 180cm(폭 9cm, 두께 5cm)이나 몽클에 박히는 부분은 폭 4cm, 두께 1cm로 짝여 박혀 있었다

잘하는 소는 하루에 4말 지기 약 1,000평 이상을 갈았다고 하는데,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경이 되니 1,400여 평의 밭을 간 적도 있다. 밭을 많이 갈고 덜 가는 것은 소도 소지만 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또 소가 2시간 정도 갈면 쉬게 하는데 이 때 '물'이나 '여물'을 주기도 하였고 점심때에는 그늘에서 쉬게 하여야만 능률이 더 올랐다고 한다. 소나 잠대가 없는 집에서는 소나 잠대를 빌어서 갈아야 했는데 이 때 품은 소도 하루, 잠대도 하루 품으로 갈았다고 한다. 쇠를 밖으로 내어 묶어 둘 때 쇠석을 묶어 놓는 것은 '뭇(말뚝)'이라고 한다. 행원에 경운기가 들어온 것은 성필이 아방네가 처음인데 1973년경이다. 잠대는 남자가 있는 집에는 거의 집집마다 있었다. 말로 잠대질을 할 때는 목에 하는 접게('도금'이라 하여 아프지 않도록 하였다.)와 등에 등태 한줄, 부림패가 연결되어 사용하였다. 임신한 여인이 '말석'을 넘으면 12달 임신한다 하여 주의하였다.

(5) 곰배 - 흙덩테기를 두드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죽냥이나 가시냥으로 만들었던 즈룩과 곰배(소냥)로 이루어졌다. 화산회토(火山灰土) 지역

에서는 병데기(병에라고도 함.)가 거의 생기지 않으므로 거의 사용치 않았다.

(6) 가래 - 행원에서는 없었다. 한동, 세화, 평대, 조천, 신촌, 동북 지역에서는 사용하였는데, 마늘 심을 때 흙을 올리는데 이용되었다고 한다. 도련곳을 중심으로 같은 구좌읍 안에서도 농작물도 다르고 농사도 다르다. 행원, 월정, 동북은 같은 농작물을 심는데, 한동, 세화, 평대에서는 다른 농작물을 심었다. 행원 모살 자꾸 들어오면 언젠가는 끊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꼬실케 - 가시가 있어서 골고루 끌어 주기 때문에 씨를 잘 감추어 주는 '볼래냥'으로 만들었다. 골을 내어 씨와 거름을 넣고 덮어 줄 때 사용하였다. 버림대, 목으로 구성되었다. 배로 묶어 끌었는데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남자라면 2, 3천평 정도 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 같으면 바타이 단단하면 더 잘 도기 때문에 꼬실케로 3번 정도 끌고 나서 다시 밟아 주었다.

(8) 남테 - 가물 때 파종하면 흙이 부각하여 푸석 지므로 꼬실케로 끈 다음 밟아 주었다. 말로나 두 사람이 끌기도 한다. 말로만 밟았는데, 말이 없는 사람들이 이 '테'를 사용하였다. 보통 말을 40~50두를 넣어 밟기도 했다. 말쉬(말테우리라고도 한다.)는 샅을 받고 밟아 주는 전문으로 하였는데 한 20일만 하는 사업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작업하였는데 하루에 지금 돈으로 백만원 정도 벌기도 했을 것 같다. 행원에도 말쉬가 5개 정도가 있었다. 말을 기르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테우리'를 한 분 고용해서 밟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15마리 정도의 작게 하는 분에서 30마리를 하는 분도 있었으며 많게는 80마리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9) 오줌항, 오줌박세기, 오줌허벅 - 고팡 항은 보통 집집마다 15개정도 이상은 갖고 있었다. 보통 2섬, 20말, 1섬들이 사용되었다. 장항굽에도 10개 이상은 있었다. 오줌항은 이렇게 쓰던 항이 타지면 10말 정도의 것을 골라 사용하였다. 집집마다 보통 1개정도 갖추고 사용하였다. 오줌은 보리밭에 주로 주었는데, 배추를 하는 집에서는 거기에다 주었다. 보리는 10월에 파종하여 그해 겨울이 되면 오줌항이 차면 밭에 가서 주었다. 오줌항에 받았던 오줌은 오줌박세기로 퍼서 오줌 허벅에 담고 흘러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지고 밭으로 날라다 사용하였다. 허벅은 10관뎨, 8관뎨의 크기였으므로 10번 이상 옮겨 골고루 뿌려 주었다. 항은 부리, 몸통, 굽으로 구성된다. 보리농사가 배추, 무우, 고추 농사로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보리농사 때는 오줌 거름이 참 중요하였다.

함석으로 만든 허벅은 해방 후에 나왔다. 허벅은 항보다 비쌌는데 보통 집집마다 1개정도 있었다. 작은 것은 대바지라고 한다. 부리, 몸통, 굽으로 이루어졌다. 행원에 수도가 들어온 것은 얼 마되지 않았다.

(10) 굴체 - 대나무로 댄 것은 가벼워서 주로 썼다. 수명은 5년 정도 썼다. 많이 쓰는 집은 1년밖에 쓰지 못한다. 쓰지 않을 때는 헛간 등에 걸어 둔다.

홍은표씨 댁에서 사용 중인 것은 어음의 폭이 48cm, 뒤 높이가 15cm, 어음의 뒷부분에서 앞까지의 길이가 54cm, 앞의 폭이 45cm 정도였다.

(11) 소시랑 - '쇠스랑'이라고도 한다. 쇠왕에서 소거름 낼 때 주로 썼으나, 쇠의 수의 따라 달리 사용하였다. 즈룩, 쇠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많이 소장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쇠이 3개인 소시랑은 거름을 낼 때 썼으나, 쇠이 2개인 것은 밭에 골을 낼 때, 쇠이 4개인 것은 흙을 팔 때 주로 썼다. 한 번 장만하면 10년 이상 썼다. 그러므로 록은 골은 낭이면 아무 것이나 썼다. 대개 아카시아낭, 레낭 등을 쓰고 소나무는 거의 쓰지 않았는데, 좀 무겁더라도 오래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홍은표씨 댁에 소장하고 있는 것은 동백낭을 즈룩으로 사용한 것이었으며, 쇠는 3개로 날이 선 쪽으로 약간 오므라진 것이었다. 즈룩의 길이는 11cm 굵기는 직경 3cm, 쇠의 길이는 19cm, 즈룩이 연결되는 목의 길이는 10cm, 쇠의 윗부분 폭이 19cm, 날 쪽의 폭이 16cm 정도였다.

(12) 거름착 - 소거름을 옮길 때 거름을 담아 소에 실어 나를 때 썼다. 질매를 채워 양쪽에 실어 나를 때 썼다. 소거름의 양이 많으므로 지게로도 저서 날랐다. 거름착은 보통 10말 짜리를 썼다. 50번 정도 날라야 보리밭에 줄 수 있었다. 마구간에 쇠를 매면 소거름을 한 번 뒤집어 주었다가 바깥에 내어 썩으면 거름착에 담아 밭으로 옮겨 뿌려서 사용하였다. 바우, 몸통, 굽으로 이루어진다. 굽은 사각으로 된 것이 보통이다. 굽이 원형으로 된 것은 작은 것을 찼 때 짜는 방법이다.

(13) 멩텅이 - 씨 뿌리는데 주로 썼다. 보리씨라든가 좁씨를 뿌리는 등 파종할 때 주로 썼다. 산디짚을 재료로 하는데 두드려서 새끼를 꼬아 '속놀'을 만들고 산디짚을 정선했다. 크기는 1말 정도 들 정도 조그마하였다. 너무 크면 어깨에 매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멩텅이코(형짚으로 만들었다.), 친, 바위, 창(굽, 바닥이라고도 한다), 몸통으로 구성되며 한 번 만들 10년 정도 썼다. 쓰지 않을 때는 비나 습기를 피할 수 있는 헛간에 공쟁이에 걸어 보관하였다.

(14) 갱이 - 검질을 매는데 썼다. 골갱이와 함께 육지골갱이, 일본골갱이도 사용되고 있다. 원래는 '쇳'이 없는 것이었으나 나중에 나온 것에는 '쇳'이 약간씩 붙은 것도 나와 사용되고 있다. '즈갱이'라고 해서 전북 검질을 사용하였는데, 큰 것은 손바닥만한 것을 주어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사흘만 쓰면 다 달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집집마다 여러 개씩 주어다 두었다가 썼다. 예전 조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나면 좀질게 나는 싹이 있는데 일일이 골갱이로 매면서 방고름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갱이로 싹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데 사용하였다. 조농사때만 사용하였다. 보리밭 검질에는 재완지, 조밭에는 쇠비늘이 대표적인 검질이였다. 검질 때는 일은 여자들이 전문으로 하는 일이다. 보리밭을 여자들이 하루 조일 메면 보통 100평 정도인데, 잘 때는 사람은 150평까지도 맨다.

굴갱이는 록, 굴갱이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루의 끝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에 박는 '당칼'은 예전엔 없었다. 손에 잘 맞게 하려고 타이어 주부를 이용한 검은 고무줄을 록에 감아 쓰기도 하였다. 보통 수명은 3년 정도이다. 요사이 5일장에서 팔리고 있는 굴갱이 값은 3,000원 정도이다. 흥은표씨 때에 소장하고 있는 굴갱이는 헛간의 한쪽에 깔려 있는 갈판 위에 놓여 있었는데 날 길이 9cm, 날목 27cm, 록 12cm 정도였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는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싸서 불어오는 바람을 견으며 이 때의 주식(主食)은 보리와 조를 반씩 썬어서 해 먹었던 '반지기' 였었다.

농약이 나오면서 충에 의한 피해가 줄어들고 제초제가 나오면서 여자들의 검질 메기 일손도 줄어들어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일 처음 나온 농약은 살충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6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수 작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내 나이가 26,7살 때였는데, 장가는 18살에 장가를 들어 자식이 있었는데 당시 28살 정도였는데 그 때는 배추를 갈면 충(蟲)이 들면 DDT를 쳤던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 당시 제주시에 농약방도 한 곳 밖에 없었다. 살충력이 센 것으로 EPN(확실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EPN은 특수한 약품이었기에 용지에 이름을 기입하고 사 왔던 기억도 있다고 한다. 혼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꼭 필요로 했던 주로 배추 농사나 특작(特作)에나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초제(除草劑)가 나온 것은 한 30년 정도 되었다. 배추를 처음 갈 때는 살충제가 없어서, DDT를 가루로 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충들이 속을 먹지 않도록 DDT를 치기도 했다. 60년 중반 경에는 멸감나방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계영씨가 28,9살 때의 일 있었는데, 무우밭을 600평 정도 갈았는데 팔기로 한 날 전날 몇몇의 멸감

나방이 보이기는 했어도 내일 뽑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 버렸다. 그런데 그 다음날 뽑기 위해 가보니 하루 저녁에 전부 먹어 낭패를 당한 기억이 있다고 기억해 주었다. 당시 돈으로 150만원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가치로 치면 10배는 더 되지 않았겠느냐며 상당히 아쉬워하였다. 멸감나방이 상당히 무서운 것이었는 지 알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약이 없었다.

(15) 호미 - 호미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구비하고 쓰는 '비는 호미'로 보리, 유채 등의 농작물을 수확할 때 밭에서 배는 데 사용하였다. 오래도록 손에 잡고 작업하는 것이었으므로 가볍게 만들기 위해 연한 쇠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3, 4번 두 시간에 한 번 정도 갈아서 사용해야만 힘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작업 능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본 호미에게 원래의 위치를 조금씩 잠식당해 가고 있는 편이다. 이와는 달리는 멸감이나 끄실케 등을 만들기 위해 가지 등을 칠 때 사용하는 호미가 '메호미'이다. 두터운 쇠로 야물게 만들었다. 메호미로 자를 수 없는 나무나 나무 뿌리 등을 자를 때 사용하였던 것이 '장호미(나네와 같은 형태로 생겼으나 장호미는 록이 호미와 같이 된 것이고, 나네는 고무를 감아 손잡이로 하는 것을 말한다)'다.

이러한 호미는 호미 날과 즈록으로 구성된다. 록의 재료는 가볍고 호미 날을 쉽게 박을 수 있으며,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원손잡이용으로 별도의 호미를 만들어 팔지는 않았다. 보통 호미의 수명은 2년 정도로 생각한다. 흥은표씨 댁에 소장하고 있는 호미는 헛간의 한쪽에 깔려 있는 갈판 위에 갱이와 함께 놓여 있었는데 날 길이 20cm, 날폭 3.3cm, 즈록 30cm 정도였다.

이런 것과 달리 요사이 일본을 왕래하는 사람들이나 성묘를 오는 제일 교포들에 의해 유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일본 호미는 톱니 같은 날이 나 있고 쇠가 야물어서 사용하는 동안 별도로 갈지 않고도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값은 보통의 비는 호미의 3배가 되지만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보리 베는 일당은 보리 1말을 주었는데 묘사이는 일당 2만 5천원 정도를 준다. 조를 벨 때는 조 1말을 준다. 조고고리 기는 밭에서 하는데 자기 농사는 자기가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루에 한사람이 300평 정도의 고고리를 톨는데, 맥을 가져다 고고리를 담아 마차 등으로 실어 왔다. 잘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늦게까지 톨으면 20말 짜리로 8, 9맥을 톨았다. 고생은 되지만 풍년이라는 즐거움으로 많이 톨을 수록 힘은 더 생겼다고 한다. 보릿고개 등으로 어려울 때 보리를 1말을 빌려 가면 나중 추수를 하여 1말 2되로 갚았다.

(16) 지게 - 소나무로 주로 만들었다. 보통 1m20cm 정도 되는 것으로 지게작대기(아카시나무, 휘카시나무)가 사용되었다. 지게 다리, 지게 가지, 세기, 뒤받침, 등태, 지게 친, 철사로 든든하게 엮었던 것을 지게 틀, 수명은 10년 정도 썼다. 지게친은 형짚이나 산디짚으로 만들었다.

홍은씨 댁에서 사용 중인 것은 지게 다리의 길이가 89cm 윗부분의 굵기는 폭 4cm, 두께 3cm, 밑부분의 굵기가 폭 4cm, 두께 4cm 정도이고 지게 가지의 길이는 43cm였다. 지게에는 새기가 4개가 박혀 있는데 위 부분에 있는 새기의 길이가 27cm, 밑으로 9cm 아래에 또 하나가, 그 새기에서 10cm 밑으로 철사를 돌려놓은 지게 틀이 있는데 그 폭이 32cm이다. 이 지게 틀에서 밑으로 11cm 밑에 또 하나의 새기가 있고 그 밑 10cm 아래에 가장 밑에 있는 새기가 설치되었는데 길이(지게 폭)가 51cm이다. 지게틀에는 등태가 달려 있는데 등태의 가로 32cm, 세로 30cm이다. 지게친은 길이가 90cm로 폭은 3cm, 두께 1cm이다.

지게로 보리를 15뭇(4뿔), 조 3뭇(한 아름)이상은 더 이상 질 수 없었다. 강하고 굵게 만들었던 것은 돌 작업을 할 때 썼던 것을 돌지게라 했다. 보리농을 질 때는 가지 밑으로 엮어 지기도 했다.

바작은 숨베기로 주로 만들었다. 대나무로 만들지는 않았다. 지게에 물

건을 실어 묶을 때 쓰는 끈은 신서란으로 만드는 '뽕꾸리'를 사용하였다.

제주도 지게가 육지와 비교할 때 특히 작은 이유는 잘은 모르지만 담 넘어갈 때가 많았다. 지게 다리가 걸린다. 그래서 걸리지 않게 다리를 짧게 만들었다. 육지는 걸리는 데가 없어서 크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물건을 옮길 때 전부 사용하였다. 여자들은 간편하게 저 나를 때 배를 쓰기도 했지만 남자들은 지게가 편했다.

홍은표씨가 소장하고 있는 지게 작데기는 동백낭을 재료로 한 것으로 길이 107cm, 코가 양쪽으로 2cm씩 돌았다.

(17) 배 - 물건 지어 나를 때 주로 썼다. 짐배는 보통 3발, 쇠약배는 10m정도, 쇠콧배, 마차에도 배, 배는 주로 나일롱, 질빵배, 신서란을 잘 쓰지 않았다. 구덕을 질 때 등이 닿는 부분의 천은 등데다. 보리를 질 때는 15묵정도 이상 질 수 없었다. 소로는 30묵 정도까지 질 수 있었다. 많은 농사일 때는 소로 20바리 3일 정도 날랐다. 하루에 7번 정도 날랐다. 보리를 늘었다가 흘트고 때려서 말렸다가 고팡에 보관한다.

홍은표씨 댁 이문간의 헛간에 사용 중인 배는 공쟁이 걸려 있었다. 공쟁이는 쪼갠시낭으로 만들었는데 대형의 낚시 모양을 하고 있다. 끝에서 날이 꺾이는 부분까지의 가장 긴 길이가 21cm, 내려오는 낭과 꺾인 날의 폭이 12cm, 굴기가 1cm 정도였다. 구루 배가 걸려 있었는데 길이가 8m정도가 되었다.

(18) 마차 - 행원에는 마차가 5대밖에 없을 정도로 귀했다. 얼마 전까지 한태섭(현 노인회장)씨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홍은표씨 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왔으나 홍은표씨도 만날 수 없었고, 마차도 볼 수 없었다. 이문간 헛간에 있는 접계와 마차질매를 측정할 수 있었다.

접계는 가지와 구살, 고리로 구성된 것인데 '도금'은 없었다. 가지 두

쪽이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한 쪽의 길이가 31cm, 폭 5cm, 두께 3.5cm 정도였으며, 진 부분은 길이 1.5cm, 굵기가 4.5cm이다. 가지에는 구살이 연결될 구멍이 2개 뚫려 있다. 윗부분이 나일론배로 연결되었는데 폭은 바깥쪽이 16cm, 안쪽이 8cm, 넓이가 4cm 정도이다. 쇠고리로 된 구살은 길이가 52cm 끝부분에 고리가 있어 마차 질매에 연결하도록 하였다. 고리의 크기는 길이 19.5cm, 폭이 5.5cm 정도였다.

마차 질매는 관리하는데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쇠로 앞뒤 가지와 물매, 걸쇠를 만든 것이었는데 도금은 고무와 형겼을 겉으로 대어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걸쇠의 길이는 한쪽으로 33cm, 도금은 가로 32cm, 세로 40cm였으며 질매가 앞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들캐를 엉덩이에 대었는데 별도로 고들캐를 만들지는 않았으며 그것을 연결하는 고들캐친을 넓이 10.5cm 정도의 베를 한쪽이 75cm이다. 이 '고들캐친'이 무거운 때문에 뒷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엉덩이 위로 Y자형이 되도록 '등테' 같은 것이 연결되었다.

(19) 산태 - 남제주군 지역에서 썼으나 행원에서 사용하지는 않았다. 돌산태도 쓰지 않았다.

(20) 홀태 - 혼자도 하고 둘도 하였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60년대까지 썼다. 이것 다음에 나온 것은 타작기라 하여 사용하였다. 홀태, 틀, 가지로 구성되었다. 오일장에서 틀을 사 와서 가지를 세워 썼다. 한 번 사면 일평생 사용하였다. 좁은 것은 한 번에 훑을 수 있었지만, 넓은 것은 3번까지 훑어야만 가능했다. 장남이 한나절 훑으면 400묵까지 훑으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5섬 정도 되었다. 집집마다 거의 다 있었다. 쓰지 않을 때는 고팡에 두었다.

이만행씨 댁에 보관 중인 홀태는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것으로 60년 이상 된 것이다. 길이 60cm, 폭 8cm, 두께 5cm의 틀에 길이 21cm, 폭 33의 쇠에 이 21개 난 것이 박혔다. 틀에는 제조 회사명인 듯한 '興農'이라는

글씨가 찍혀 있고 앞발과 뒷발을 세워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 양쪽에 각각 2개씩 뚫려 있다.

(21) 독개 - 홀태와 동시대에 사용하였다. 보리, 산디, 콩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다. 독개아들(동백낭, 윤유리-꺾어지지 않고 질기다), 어시(곧고 가벼워 죽냥을 주로 썼다.), 툴레(아들과 툴레는 소가죽으로 묶었다. 윤유리로 주로 했다. 왜냐하면 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즈룩, 한 집안에 7, 8개정도 두고 사용하였다. 거의 만들어 사용하였다. 한라산으로 4, 5km 정도 가서 주로 구했다. 지금도 선홍 쪽에서 주로 나온다. 아들은 하루에 하나 없어질 때도 있다. 꺾어지고 찢어지고 해서 아들은 여러 개 만들어 두고 쓴다. 쓰지 않을 때는 헛간 같은 곳에 세워 보관하여 둔다. 한나절 탈곡할 경우에는 3섬 정도는 탈곡할 것으로 안다.

홍은표씨 댁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낭으로 만든 어시의 길이가 154cm, 굵기가 3cm 정도였다. 독개아들은 동백낭으로 만든 것으로 굵기 12cm, 길이 148cm이다.

보리농사를 많이 했던 얼마 전까지 맥타기를 비어 타작을 할 경우 1섬의 수확에 샅을 1말 정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요사이 보리농사는 콤바인으로 밭에서 직접 수확해 들이는데 샅으로 100평당 돈 2만원을 준다.

(22) 작대기 - 보리 조를 넣어 말릴 때 범벅해서 데우쳐 칠 때 쓴다. 병태기를 뒤집어 줄 때 사용하였다. 아무 낭이나 재료로 사용하였다. 즈룩은 길수록 좋았다. 가지와 즈룩으로 이루어졌다. 이 낭은 아무 곳에서나 구해서 썼다.

(23) 글갱이 - 불치나 굴묵에 뿔감을 이용해 불을 피울 때 사용하던 것으로 뿔감으로 사용하였던 솔섞 등을 굽어다가 밥도 해먹고 굴묵도 지르고 하였다. 타작할 때는 검불을 걷어 낼 때도 만들었다. 대로 만든 것도 있고, 쇠로 만든 것도 있다. 날이 하나 둘 꺾어져도 썼다. 사다가 썼는데

보리 2관래 정도 되었다. 날을 10-14개 정도 있었고 버림대로 간격을 조절하였고 즈룩과 묶어서 연결하였다. 쇠로 된 것은 나중에 나왔다. 쓰지 않을 때는 헛간 등에 두어 비가 맞지 않도록 하였다. 즈룩은 곧은 낭으로 썼다.

홍은표씨 대에서 사용 중인 것은 날의 수가 10개인 쇠글쟁이로 날의 앞폭이 26cm, 즈룩과 연결되는 목과 8cm 정도 떨어진 곳에 날이 가지런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했던 벌림대의 폭은 14.5cm였으며 즈룩의 길이는 110cm였다.

(24) 솔박 - 지금도 쓰지만 곡식 불릴 때나 곡식을 항에 넣을 때도 썼다. 솔박도 있고 퇴약세기도 있다. 대개 소나무, 삼나무, 폭낭 등 가벼운 나무로 만들었다. 소나무 좀 등에 약하나 항상 사용하므로 충(蟲) 등이 침범할 시간이 없어 소나무로 만들었지만 오래 갔다. 자루가 붙은 것도 있었는데 뜨거운 물을 옮길 때나 소죽을 퍼담고 옮길 때 등에 썼다. 그러므로 솔박의 기능과는 달랐다. 가장자리를 바위, 밀창으로 구성되었다. 수명은 보통 20년까지도 쓴다. 30살에 장만해 둔 것을 70살인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요사이에는 고팡 등에서 밀가루를 퍼담는데 쓰고 있다. 가정 필수품이어서 없는 집이 없었다. 곡으로 만든 바가지로 몰박으로 주로 사용하였던 '곡박'도 사용되었다.

이만행씨가 사용 중인 것은 자구낭으로 만든 것으로 어머님께서 사용하시다 물려준 것으로 60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한다. 길이 33cm, 넓은 쪽 폭 21cm, 깊은 쪽 높이 17cm 정도이다.

(25) 알맹이 - 곡식의 알맹이를 골라내는데 쓴다. 알곡은 밑으로 세고 검불만 건어 내는데 거친 낭데기는 글쟁이로 그보다 작은 것은 알맹이로 치고, 그 다음 것은 솔박으로 바람에 날려 정선한다. 그래서 고팡으로 들어 넣는다. 보리는 방에 넣어 도정했다. 바위틀(원래는 다래 줄을 못 구하면 삼동낭을 주로 쓰나 없으면, 윤유리낭으로 썼다.), 바위, 쳇망, 체로

구성되었다. 요사이는 플라스틱으로 된 얼맹이를 쓰고 있다. 남녀 가리지 않고 썼다. 체와 쳇망은 실로 묶었다. 보리 1말에서 5, 6되 정도는 준 것 같았다. 여자 일당이 보리 1말이니까 싸지 않은 것이었다. 밭갈이는 여자 일당3배는 되었다. 쟁기, 소 갖고 가고, 논따라 가고 해서 3사람 일당을 주었다.

이만행씨가 보관 중인 것은 일반 체와 같은 형태의 것으로 쳇망은 소 낭으로 만들었고 체는 철사로 된 것이었다. 직경 41cm, 쳇망 높이 11cm, 방형의 체의 눈 길이는 3.5cm 정도였다.

(26) 덩드렁마개 - 옛날에서 산디 짚을 때리는데 주로 사용하였다. 꼬고, 신발 만들어 신고, 맥도 고, 멍석도 고 하는데 짚 등을 때리는데 썼다. 즉륵, 몸통으로 이루어졌다. 참나무(가시나무)로 만들었다. 오래도록 썼다. 크기는 다양하였다.

(27) 신서란 - 노를 만들어 썼다. 사람 죽어서 수렴할 때 묶을 때 썼다. 60년대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예전에는 없었다. 예전에는 칠성 창호지로 지승을 만들어 썼다.

(28) 멍석 - 날레 낼 때 주로 썼다. 집집마다 5, 6개를 갖고 있었다. 농사하는 집은 몇 개씩은 있었다. 농사가 많은 집은 8개까지 있는 집도 있었다. 마당에는 보통 3개 정도 깔면 되었기 때문에 구입해야 할 때는 보리 5말은 주고 샀다. 노를 짜 놓은 상태에서 나홀 이상 걸리는데, 보통 일주일 걸렸다. 당년에 하나 정도 장만할 수 있을 정도로 빛난 것이었다. 쓰지 않을 때는 헛간 등에 끈을 달아 걸어 두는 데 이때 중앙의 구멍 속으로 쥐가 들어가지 못하게 소나무를 꽂아 두었다. 쥐가 들어가 오줌이나 싸면 그 부분이 쉬 썩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가장자리가 헤어지면 노를 꼬아서 손을 보면서 사용하였다. 큰일이 있을 때는 마당에 깔고 사용하였다. '덕석'이라고도 했다. 보통은 것은 너비는 한발인 6자에서

4자 정도, 길이는 9자에서 8자 정도였다. 작은 것은 ㄱ렛방석이라고 했다. 한 번 장만하면 평생 쓴다. 멍석을 짜는 기술은 어른들에게서 배웠다. 멍석은 상방에서 주로 작업하는데 겨울에 늘 때 하였다. 예전에는 보리, 조만 해서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맥과 멍석 짜는 것이 남자들의 일이었다. 동지, 선달, 정월 등 한 겨울에 잤다. 산디를 1,000평에서 2,000평 정도는 갈았는데 1질을 만드는데 산디짚은 2동(20뭇-20단)이 들었다. 60단 정도는 든다. 멍석은 한 번에 전부 때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쓸 양만 때려서 사용하였다. 물을 추겨서 때리는 옛날 하루 사용할 만큼 때려 낫다가 썼다.

놀을 넣고 7, 80정도의 놀을 댄다. 널 사이로 짚을 넣으면서 엮어 나간다. 옆으로 대어가던 짚은 언제나 2가닥을 한꺼번에 넘기기 두 개가 뭉치는 것 같다. 때문에 하루 작업해도 자 가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보통 하나를 완성하는데 6, 7일 정도 걸렸다. 오른쪽으로 갈 때 보다 왼쪽으로 엮을 때가 훨씬 어렵다. 흥은표씨 댁이 소장하고 있는 멍석은 3개로 가지런하게 정리된 헛간의 한쪽 벽에 세워져 있었다. 큰 것은 폭이 151cm 그보다 작은 2개는 폭이 135cm였다.

‘지득’이라고 해서 새로 뜬 짜듯이 고드랫들로 엮어 만든 것을 말하는데 산제(山祭) 등에 가는데 갖고 다니기도 했다.

(29) 푸는체 - 가벼운 것을 불러 내는 데 쓰는 것이다. 어음, 밀창, 밀창은 대로 한 것이 많았다. 오래 쓰기 위해 정당으로 한 것은 비싸다. 양이 많지 않을 때 엄밀하게 정선할 때 썼다. 집집마다 다 갖추고 썼다. 어음의 재료는 너딩을 주로 썼다. 어음은 ㄱ레줄 같은 너딩냥을 꿰어다 두었다가 얇게 썬서 사용하였다. 밀창과 어음의 연결은 남총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대를 두드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나를 준비하면 20년 정도 사용하였으며 쓰지 않을 때는 헛간 같은 곳에 두었다. 비만 피하면 되었기 때문이었다. 밀창이 타지면 바르거나 지어서 다시 사용하였다.

안공옥씨가 사용 중인 푸는체는 바닥이 훼손되어 보리 포대 천으로 보

완한 것이었다. 어음은 10cm 정도로 넓게 쪼갠 낭으로 사용하였는데 앞쪽에서 구부러지는 때까지의 길이가 52cm, 앞쪽의 넓은 폭이 47cm, 뒤쪽의 깊이가 19cm 정도였다.

(30) 군데 - '근데' 라고도 한다. 멍석에 날레 널 때(탈곡한 보리를 저장하기에 앞서 햇볕에 말리는 작업) 사용한다. 민 짝한 것과 톱니가 있는 것 2종류가 쓰였는데, 민 짝한 것은 주로 작은 것으로 굴목에서 불치를 내는데 사용하였다. 반면 톱니가 있는 것은 곡식을 말릴 때 주로 사용하였다. 즈룩과 군데로 이루어졌다. 즈룩은 참나무가 좋으나 구하지 못하면 소나무 등으로도 만들었다.

홍은표씨 댁에서 사용 중인 것은 이빨이 8개 난 것으로 '소낭'으로 만들었는데 폭이 49cm, 높이가 13cm, 즈룩은 124cm였다.

(31) 돌궤 - 각 동(洞)에 하나씩 6개가 있었으므로 50여 호(戶)가 1개씩 가졌다. 차례를 정하여 썼는데 동반장이 순서를 정해서 사용하였다. 하루에 3섬 정도를 갈았다. 주로 사람이 들렸는데 소나 말을 매어 돌리기도 했다. 탈곡을 위해서는 5사람 정도가 필요했다. 귀가 4개이므로 하나씩 잡고 미는데 필요한 수가 4명이었고, 옷돌이 돌아가면서 밀려나오는 곡식을 밀어 주는 일을 하는 여자가 있었다. 돌도고리(돌혹이라고 한다.)에 5말 정도의 보리를 넣고 물을 허벅으로 2개 정도를 넣어 10여분 정도 축여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보리의 알곡이 마른 상태로 갈면 쉽게 깨어질 수 있으므로 물에 킷다가 사용하였다. 5말을 도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렸다. 보리는 쉬운 편이어서 2번 올렸다가 3번째는 내리기 때문에 5말에 30분 정도 걸리는 것이다. 맥에 담아서 집에 와서 멍석에 깔아 널어 둔다. 어느 정도 마르면 바람에 불려 정선한 다음 항에 보관한다. 보리 5말을 작업하면 3말 조금 넘게 알곡을 얻게 된다. 먹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사람이 한 달에 대두(10되) 한말 정도를 먹는다고 한다. 돌궤의 집과 돌, 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을 만들어 관리하였다. 접

원에게 사용에 대해 우선이 것이 주어졌으나 접원이 아니더라도 샅을 내고 사용하지는 않는다. 동(東) 동네에 돌궤가 2개 서(西) 동네에도 돌궤 2개가 있었다.

돌궤의 부분 명칭은 돌뱅이판, 맷들, 궤착(아무냥으로도 쓸 수 있으나 주로 참나무로 쓴다.), 돌뱅이틀(참나무로 하기 때문에 오래간다.), 중수리(?), 맷들에 박힌 것은 장통(참나무로 만들었다.), 좃둥이(동장(洞長))에게 맷겨 두는 것이다. 참나무로 만들었다.), 새기로 이루어진다.

(32) 절구 - '도구방에' 라고도 한다. 궤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보리를 여기서 도정하기도 한다. 방에귀(참나무로 만들었다.)로 찼었다. 낭으로 된 것도 있으나 거의 들이다. 다공질에 들어가는 가루도 빗자루로 쓸 먼 다 나와서 더럽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깥에 그냥 두었다가 사용할 때 물로 씻은 다음 사용하였다.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명칭은 별도로 없었다. 나무절구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절구도 행원에는 2개밖에 없었는데 강우봉씨 댁의 것이 이만행씨 댁의 것보다 더 큰 것이었다고 한다. 이만행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외할머니께서 사용하시던 것으로써 100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였다. 구경이 47cm, 높이 44cm였다. 방에귀는 낭으로 만들었는데 길이 95cm, 굵은 쪽 직경이 10cm였다.

(33) 방에 - 가루를 찼는데 사용하였다. 제사 때는 얼마 하지 않지만 대·소상때 떡을 많이 했다. 떡을 많이 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2사람이 사용하는 것(두콜방에라고 함)이 보통이었고 3사람이 사용하는 것(세콜방에)은 사용하기 힘들었다. 세 사람이 호흡이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람은 세콜방에를 찼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바위, 들혹, 굵으로 이루어졌다. 행원에는 들방에는 없었다. 안재완씨 댁에 보관 중인 들혹은 2개가 있었다. 큰 것은 높이 20cm, 구경이 23cm였으며 작은 것은 높이 16cm, 구경 21cm 정도였다.

(34) 맷돌 ㄹ래 - 여러 가지가 사용되었다. 모물쌀 벌리는 것, 보리쌀 벌리는 것, ㄹ루 가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보리를 벌리는 데 쓰는 것은 옷돌이 크고 두터운 반면에 모물쌀을 하는 것은 얇다. ㄹ루가는 것도 중간 정도도 두터운 편이었다. 있는 집에서는 각각의 것을 갖추고 살기도 하였다. 록(참낭으로 주로 했지만 구할 수 없을 때는 꺾가시낭, 동백낭으로도 만들었다. 손잡이), 흑(곡식을 넣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한 곳), ㄹ래쫘(낭으로 만들었다.), ㄹ래썩, 알들에 ㄹ래쫘를 박은 곳이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이 달아지면 밑을 두드려 높이를 조정하면서 사용하였다. 보통 보리 검필 때는 2, 3시간이 많이 하는 편이다. 한 번 작업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였다. 많이 갈아야 할 때는 큰일 때 등 여자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멀리 앉은 남자가 당겨 주면 힘을 도울 수 있었다. 한꺼번에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도록 10말 정도는 작업했었던 것 같다. 보리 10섬 정도를 갈면 적어 주어야 했다. 보습으로 자기 냥 툯툯 적었지만 스스로 못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았다. 석수의 10일 정도의 일당을 주어야 구할 수 있었다. 옛날에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주문하여 구하였다.

이만해서 대에 맷돌 ㄹ래는 ㄹ래 원래 기능으로 사용치 않고 정원석(庭園石)의 하나로 보관 중인 것이었다. 옷돌의 지름이 12.5cm, 두께 12cm, 알들 두께는 13cm 정도였다.

(35) 코있는 ㄹ래 - 두부 만들 때만 사용하였다. 밑에 그릇을 대어 흘러나오는 것을 받도록 되었는데, 50호당 하나 있으나 마나 했다. 뚝비를 만들 때 뚝비틀은 행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배자리나 광목자리에 삶은 것을 담고 받침을 깔고 그 위에 놓은 다음 그 위에 ㄹ래를 지들여 놓고 만들었다. 틀을 이용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두부의 모양이 달랐다.

(36) 도고리 - 가루에 물을 적서 떡을 만들 때 사용하였다. ㄹ래를 넣어서 작업하는 ㄹ랫도구리도 사용되었다.

(37) ㄱ래방식 - ㄱ래를 놓고 작업할 때 썼던 방식이다. 가장자리가 민 짝하게 퍼진 것과 가장자리가 들러 ㄱ래만 들어 놓고 작업한 것의 2가지가 있었다. 2틀 정도 작업하면 짤 수 있었던 것으로 산뒤짚 10뭇 정도 들어가는 정도 짚은 얼마 들지 않는 편이었다.

이만행씨 댁에 보관 중인 것은 가시어멍(妻의 母)이 물려준 것으로 60년 이상 된 것이다. 직경 162cm 정도이다.

(38) 체 - 대체(검불 견어 내는 것으로 열멩이보다 조금 작은 눈의 크기를 갖는다. 체의 재료는 대나무였다.), 거름체(조기떡 만들 때 사용하였던 중가루를 낼 때 주로 사용하였다. 체는 말총으로 만들었다.), 대거름체(보리 검필 때 쓴다. 체의 재료는 말총이었다.), ㄱ는체(좁진체라고도 한다. 체는 말총으로 만들었다.)의 4가지 사용되었다. 보리 2관푼에서 1말 정도를 주고 구입하였다. 쳇망(너덜을 얇게 깨어서 사용하였다. 겹쳐지는 부분은 인모나 말총으로 묶었다.), 체로 구성되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헛간에 보관하였다. 4종류를 다 갖추지는 한 두 가지는 갖추고 살았던 필수품이었다.

이만행씨 댁에 보관 중인 체는 대체, 대거름체, ㄱ는체였다 대체의 규격은 쳇망의 지름 26cm, 높이 9cm, 눈의 크기는 2cm, 대거름체는 쳇망의 지름 27cm, 높이 9cm, 눈의 크기는 1.5cm, ㄱ는체의 쳇망 지름은 28cm, 높이 9cm, 눈의 크기는 1cm 정도였다.

(39) 뒤주 - 귀했다. 부잣집에만 있을 정도였다. 일권이네 집에 있었다. 굴목이 같은 좋은 나무로 만들었다. 상방에 두고 사용하였다. 알곡을 주로 담았다. 90말, 100말 정도의 곡식을 담을 수 있었다.

(40) 항 - 예전에는 안거리에 구들 2개와 고팡이 2개씩 있었는데, 한 고팡에 10개에서 많게는 15개 정도까지 있었으므로 상당히 많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도둑이 귀금속이나 돈을 훔치지만 옛날에는 쌀도

독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안거리에 고팡을 마련해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향의 크기는 10말들이에서부터 2섬(30말)들이까지 다양하였다. 보통 가정에서는 고팡 하나에 10말 짜리는 3, 4개, 20말 들이는 4개 정도 2섬들이도 2, 3개 정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향은 주로 대정향을 구입하였다. 대정 사람들이 배로 실어 부두로 들어와 동네 사람들이 부두로 나가 구입하였다.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20말들이 향이라면 10말 정도의 보리를 주고 샀던 것 같다고 한다. 당시 소 한 마리가 250원 정도 했는데 향이 60원 정도 였으므로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바위, 몸통, 굽으로 구성되었다. 옹기로 만든 향두께는 거의 없었다. 고팡 향의 두께는 나무 판자를 덮거나 장독대의 향은 솔뚜껑으로 덮었다. 단지도 종류별로 몇 개씩은 갖추고 살았다.

장독대의 된장, 간장은 10말 또는 15말들이의 것이 주로 사용되었고 첫단지 등은 5, 6개 정도를 갖추고 살았는데 자리젓, 멜젓, 고도리젓, 마늘젓 등 많았다. 옛날에는 젓이 밀반찬이었으므로 젓단지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 고추장 단지도 있었으나 제주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았다. 다 합하면 장독대의 향은 10개 정도가 된다.

향은 대정향(붉은향), 육지향(검은향), 지세향으로 구분된다. 육지향은 무안 사람들이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포구로 실어 와서 팔았다. 10말 정도 크기의 향에 3말의 보리를 주었던 기억이 난다. 보리를 받은 상인들은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가기도 하였다. 향이 비싸서 혹 깨어지더라도 하면 집안에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난다. 여자가 보리를 하루 비는데 샅이 보리 1말이었으니 향은 비싼 편이었다. 행원의 경우 1말 지기가 200평으로 본다. 이를 수확하면 100평 1섬 나면 잘 나는 편이었다. 알곡은 46제 정도로 나온다. 식량을 준비할 때 계산하는 법은 1사람이 일년에 보리 1섬, 조 1섬을 먹는다고 보고 준비하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더 많이 먹었는데 한 달에 2말 정도 먹었고 얼마 전까지는 한 사람이 1말 가운을 먹었다고 한다. 보통 2,000평 정도의 토지를 갖고 있었고 3,000평이면 많이 가진 집이었고, 1,000평 정도는 가난한 집이었으므로 태풍의 피해나 일기가 좋지 않

아 언제나 식량이 모자라는 실정이었으므로 아이들의 길흉사(吉凶事)나 교육 등을 위해서는 남의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상군 줌녀들이 전라도 등에 1년 정도 물질하러 갔다가 와서 500평 밭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파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쌀 편은 아니었다.

홍은표씨 댁에는 헛간에는 항뿐만 아니라 말통, 드럼 등이 가지런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대구공업사근제라는 제작사 마크가 찍인 플라스틱은 말통에는 550 l 용이라는 규격도 표시되어 있는데, 규격은 구경 95cm, 높이 102cm였다. 드럼통은 구경 63cm, 높이 89cm이다. 항은 4개가 있었는데 항뚜껑을 함께 갖고 있었다. 높이만 보면 85cm, 80cm, 72cm, 70cm(직경 29cm)정도였다.

(41) 맥 - 2섬까지 들어가는 것(창맥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보통의 맥은 15말 1섬 들이가 많았다. 왜냐하면 1섬 들이에 7, 8말 정도의 거름이나 운반하고자 하는 것을 담아 지게 등에 실어 날랐다. 집집마다 5, 6개 정도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농사를 많이 하는 집에서는 맥도 많이 갖고 있었다. 소에 실어 운반하는 거름을 맥으로 옮기려고 할 때 3마리에 실어 나르기 위한 6개는 필수품이었음이 알 수 있다. 15말 이하의 거의 만들지 않았다. 멩탱이라고 하여 5, 6말들이 정도의 것도 있다. 맥같은 자기 스스로 배워 가면 만들어 사용하였다. 사용치 않을 때는 감아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였다. 흙, 소거름, 보리 등의 운반에 이용하였다. 15말들이 맥은 2일 정도면 만들 수 있고 날줄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짚은 2동 이상은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이 쓰면 5년 정도는 사용하였다.

(41) 갈웃 - 일할 때는 언제나 입었던 것이다. 미წ을 재료로 옷을 만든 다음 감물을 들이면 갈웃이 된다. 감물을 들이는 때는 7, 8월경 감이 익기 전에 따야 고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감을 따서 도구리에 넣고 막개로 찍어서 고름이 나오면 감물들일 옷을 넣어 버무르면 된다. 바지저고

리 한 벌에 감물을 들이는데 감은 2관푼 정도 들어간다. 빛을 좋게 내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바래야 한다. 처음에 감물을 들이는 우중충한 색이나 이것을 계속 하루에 한 두번 정도 물에 빨았다가 벌이 좋은 곳에 널어 말리고 바래면 점차 갈색으로 변해 간다. 일주일 정도 바래면 색깔이 빨강계 곱게 나오는데 바래는 중에 비를 맞으면 색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썩기도 한다. 한 번 만들면 3년은 입는 편이다. 일이 많은 집에서는 3, 4벌씩은 만들어 입었다. 때가 안타고, 땀이 나도 몸에 붙지도 않으며, 한 6개월 정도 입으면 풀 기운이 빠진다. 감물을 들이면 더 질겨지는 편이다. 미녕 바지저고리를 그냥 입으면 3개월 정도밖에 입을 수 없으나 갈옷은 한 3년은 입는 편이다.

(42) 정동벌립 - 여름에 남자들이 썼다. 보리낭 패랭이보다는 좀 무거운 편이나 100년 정도는 쓸 수 있을 만큼 질기다. 창과 모자로 구성된다. 부잣집에서만 있었을 만큼 어려웠던 것이다. 옛날에 정당벌립 쓴 양반이라는 말이 있었다.

(43) 대패랭이 - 정당벌립보다 가볍고 값도 싸다. 창과 모자로 구성된다. 여자들도 많이 썼다. 사서 썼던 것인데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었다. 비만 맞지 않으면 이것도 100년 정도는 썼던 것이다. 여름에 검질 땀 때는 반드시 모자를 썼다고 한다. 제주도 햇볕은 너무 세서 그냥 검질 때면 일사병에 걸리기 쉬웠기 때문이다. 대패랭이는 보릿짚으로 엮은 것을 주로 썼으며, 대나무로 엮은 것도 썼다. 정동벌립을 쓰기도 했다. 밀짚 패랭이, 여자들은 수건을 주로 썼다. 검질 땀 때는 일광 받지 말라고 대패랭이를 주로 썼다. 안재완씨 덕에서 사용 중인 대패랭이는 70년대에 구입한 것으로 차양의 지름이 48cm, 모자의 높이가 16cm 정도 되는 것이었다.

(44) 삿갓 - 대패랭이와 같은 것인데 대의 속껍질로 만들었다. 햇빛 가리개로 사용했다. 삿갓 위를 종이를 여러 겹 붙여 두었는데 이는 비가와

도 그냥 세어 들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다. 속에 머리를 넣는 ‘댕기’가 있는데 이것이 머리에 맞아야 한다. 남녀들을 가리지 않았으나 가벼워서 여자들이 주로 썼다.

(45) 우장 - 새로 만든 것이다. 속의 ‘노’는 너삼 혹은 미로 짚을 만들어 만든 것이고 겉의 재료는 새의 끝을 두 줄로 나누어 따서 만든 것이다. 이성화 아버지네 집에 있었고 쇠 보는 사람이 주로 입었다. 비가 억수로 와도 새 출로 만든 병것을 쓰고 누워도 비가 들지 않는다. 이러한 비에 요사이 나오는 ‘갑바’는 비가 새는 경우가 있었지만 우장은 그렇지 않았다. 필요할 때 만들어 사용하였지 사고 파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력(功力)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렸다고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뎠에 보통 걸어 둔다. 쥐가 들어 상하면 낭패이기 때문이었다.

(46) 쇠 가르치는 돌 - 돌 고망 뚫려진 것을 배로 묶어 길들이는 쇠에 연결하여 끄시는 데 사용하였다. ㄱ레착을 끌도록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무거운 낭을 끌도록 하기도 하였다. 마소가 3살 정도가 되면 가르쳤는데 밭에서나 길에서 끌어 댕기면서 단련이 되면 아프지 않게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밭에 가서 확인을 해 본다. 순순히 잘 끄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주일 정도 끌고 다니면 거의 밭에서 잠대질을 했는데 행원에서는 특히 모래밭에 가서 쟁기를 매어 많이 가르쳤다. 돌의 무게는 3, 40kg 정도 되는 데 구멍 뚫린 돌에 철사를 묶어 사용하였다. 하루에 2, 3시간 정도 시켰다.

안재완씨 댁에 보관 중인 쇠 가르치는 돌은 부정형의 것으로 긴 쪽이 길이가 28cm, 짧은 쪽의 길이가 18cm 정도였다.

(47) 낫 - 출 비는 데 썼다. 잘 비면 20바리 보통은 15바리 정도 비었다. 출발이 집집마다 따로 가꾸었다. 배우는 날 이제영은 20바리를 비었

다. 서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비는데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빈 다음 모아 묶어 놓고 나아가고 하는 식으로 비어 나가는데 땀이 많이 나고 다루는 기술이 쉽지 않았다. 낫도 좋아야 하지만 출발의 잡초 등이 없어야 많이 빌 수 있었다. 밭 2말 지기의 출을 빈 것인데 고사리든 것을 한아름이 되게 비어 묶었는데 20바리를 비었는데 스스로도 놀랐다고 한다. 그날 가르치던 종윤이 삼촌이 옆에서 가르쳤는데 스는 것(왼쪽으로 치는 것)이 안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오셔서 가르쳤다. 록은 가볍고 곧은 낭인 죽낭을 주로 사용하였다. 선홀에 가면 죽낭이 많았다고 한다. 날이 즈룩과 90도 이상의 각으로 벌어지면 많이 비어지기는 하지만 쉽게 지쳐 적당히 자기의 힘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출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 이때는 날이 좋아야 했다. 행원의 경우 남자가 있는 집이면 어느 집이라도 있었다. 이계영의 부인인 현옥순씨의 경우 잘 비었다고 기억하였다. 행원에는 없으나 요사이 과수원하는 집에서 호미를 긴 나뭇가지에 묶어 방풍림을 자르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홍은표씨가 소장한 낫은 죽낭으로 즈룩을 만들었는데 길이 184cm, 폭 2cm, 넓이 3.5cm 정도인데 날의 길이가 45cm, 날 폭은 5cm 정도 되었다.

(48) 말 - 1관뿔, 한말, 반승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바위 굽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사서 사용하였다. 4관뿔 1말, 5관뿔 1말 짜리가 있었으며 대두 1말 짜리도 있었다.

이만행씨 때에 보관 중인 관뿔은 방형으로 가로 세로 길이 18cm, 높이 9cm, 반관뿔의 규격은 가로 세로 길이 14cm, 높이 8cm 정도였다.

4. 조사 후기

요사이 농기구는 발같이 때 쓰는 경운기, 트랙터, 보리를 수확하는데 쓰는 콤바인, 타작하는 데 쓰는 맥타기, 콩 타작하는 것 등이 쓰였다. 비료를

뿌려 주는 기계도 쓰였다. 당근, 마늘, 파를 주로 경작하므로 옛 농기구는 거의 사용치 않았다. 이 때는 호미, 골갱이가 이용되고 있다. 당근은 평지에 씨를 뿌려 파종하고 파와 마늘은 종자를 밭에 심어 파종하였다.

전래 농기구에 대한 사진 촬영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촬영 당일의 현지 실정으로 실제 촬영은 30여 점밖에 할 수 없었다. 잠정 소장자들은 다음과 같다. 잠대는 흥은표씨 덕에 있다. 따비는 없고, 벤줄래(데꼬)는 있다. 팽이는 많고, 곰배는 조농사를 하지 않으니가 없다. 낭갈래죽은 없다. 꼬실케는 만들면 되고 남테는 행원에는 없고 평대에서 본 기억이 있다. 오줌항, 오줌허벅, 오줌박세기는 없고, 골채는 어느 집이나 있다. 쇠스랑은 있고 거름차는 셋동네 상호 하르방네에 있는 것 같다. 땀망탱이는 없고, 골갱이, 호미, 지게는 어느 집이나 있고, 마차, 멩에, 질메도 흥은표씨 덕에 있을 것 같다. 산태는 없다. 태는 독개, 작대기, 글갱이, 솔박은 쉽게 있을 것 같고, 얼멩이는 쇠로 된 것이 있고 막개는 모르겠다. 멩석은 있고, 푸는체는 있으나, 근데는 없다. 물궤, 물통은 없다. 돌절구도 없다. 도고리나 방에도 거의 없을 것이다. 궤라도 다 팔아먹었다. 궤방석, 체는 많다. 두지는 일권이네 집에 있을까 확인해 봐야 한다. 항은 10개 정도 있다. 멩석, 맥은 이상우씨 덕에 있는 것 같다. 갈중의는 있고, 정당벌립, 샷갓은 없으나 대패랭이는 있다. 낫과 관뒤는 김인홍씨덕에 있다.